



▲ 40% 이상 녹지로 둘러쌓인 은평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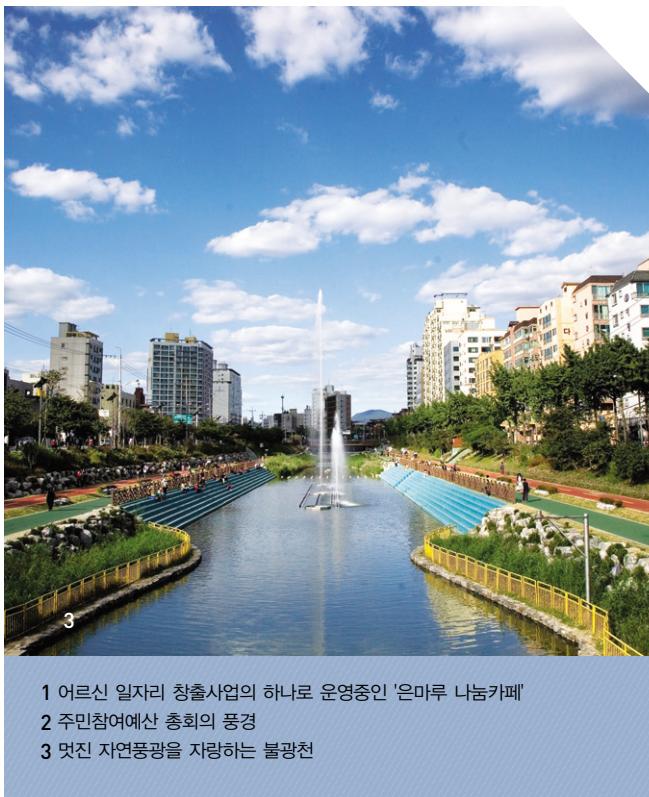
서울시 은평구는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이 슬로건이다. 모든 행정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아래, 따뜻한 정과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인간미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 잘 사는 ‘사람의 마을’을 꿈꾸는 은평구를 찾았다.

- 서울시 은평구는 푸르른 북한산의 넉넉한 품 속에서 50만여 구민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을’이다. 재정여건이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보다 좋진 않지만 따뜻한 정과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인간미 넘치는 곳이다. 지리적으로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서울과 경기 서북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남북교류의 관문 역할을 한다.

특히 연간 1,000만 명의 등산객이 찾는 북한산을 배경으로, 여러 자연공원과 불광천 등 구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녹지로 되어있다.

구청 살림살이, 주민이 직접 결정하다

- 작년에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대회에서 ‘구청 살림살이 주민이 직접 결정해요’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은평구는 지난 2010년 7월, 김우영 구청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주민참여 준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서울시 최초로 지난 2010년 12월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서 2011년 8월에는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그해 11월에 전국 최초로 주민 700여 명을 초청해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참여예산 주민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주민들이 제안한 각 지역사업들을 주민 스스로 심사해 예산편성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작년 9월 열린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에서는 은평구민이 제안한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 건



립’ 등 6개 사업 모두가 선정되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유치·확보하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키는 데에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특히 2013년 사업예산을 결정하는 작년 참여예산 주민총회의 경우, 방문 투표가 불가능한 직장인이나 학생,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한 것이다. 2주 동안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는 예상보다 많은 1만 1,000여 명이 참여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희망마을담당관 조직이 주민참여 이끌다

- 은평구청에는 다른 곳과 달리 ‘희망마을담당관’이라는 독특한 조직이 있다. 주민참여방안을 모색하고자 신설한 부서. 현재 참여구정팀, 마을공동체팀, 창의비전팀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팀들은 참여예산학교와 지역회의 리더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최근에는 주민들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도 펼치고 있다. ‘창의구정’을 위한 씽크탱크로서, 공무원·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외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구정에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핵

심부서로서의 역할을 해나간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지금은 정착 단계에 이르게 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29개의 새로운 주민모임을 만들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치구 마을공동체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7,000만 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다.

마을공동체사업 내실화 다지다

- 은평구에게 지난해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 해였다. 조직·조례 등을 정비하는 한편, 마을공동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은평마을넷’이라는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를 통해 집담회, 포럼, 마을일꾼과 마을활동가가 함께하는 워크숍, 마을학교 등을 운영하는 동시에 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로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에 주력했다. 그 결과 29개의 새로운 주민모임이 씨앗을 틔웠다.

주민들이 재능이나 물품을 공유하는 ‘은평 e-풀앗이’ 공동체나 육아 풀앗이로 자녀를 돌보는 ‘한빛마을센터’, 새내기 주부와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전통 장 담그기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참다래 장독대’ 등은 각종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올해는 마을공동체 사업 2년차. 마을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마을 간 연계를 통한 복합적인 마을공동체 육성으로 마을



활동을 공유하는 한 해로 삼았다.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의 내실화를 다지는 사업들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자립형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 간의 중장기 로드맵인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부서 간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마을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과 연계를 통한 동반 상승효과를 얻고자 ‘마을공동체 연찬회’도 개최했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마을자원과 공동체들의 활동을 한눈에 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지도’를 제작하고, 공동체들이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마을살이 축제’, 공동체들의 형성과 성장과정, 활동사항 등을 공개하는 ‘마을이야기 발표회’ 등을 통해 마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옛 은평소방서 3층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주민과 행정의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

면서 좀더 많은 주민모임이나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두꺼비 하우징 프로젝트 본격 추진하다

-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관해 은평구는 올해 도시재생사업인 두꺼비 하우징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기존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의 물리적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정주권을 확보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시범단지로 선정된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신사동 237번지 일대)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매주 마을운영회의를 열어 마을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마을지킴이를 구성해 야간에 마을을 순찰하고 있다. 마을텃밭을 운영하면서 재배한 작물을 기부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산새마을과 더불어 산골마을(녹번동 71번지 일대 및 응암동 30번지 일대)에서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역의 특성을 살려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올해는 두꺼비하우징과 관련된 협동조합 조성도 고려중이다. 재개발을 기다리다 집수리 시기를 놓친 오래된 주택 중에는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주택들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규모의 경제가 형성된다면 집수리 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자는 공급자들대로 건축 시공업체, 설계업체, 건설기술자, 건설노동자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구성해 두꺼비하우징에 참여한다면 지속적인 일거리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이

살아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는 전략이다. 은평구는 두꺼비하우징이 단순히 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형성을 도움으로써 문화·보건·복지 등을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마을 만들기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올해도 구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일자리, 주거, 복지, 마을공동체 복원을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열쇠인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통해 은평구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6



1 마을공동체사업 구축을 위한 ‘은평 마을넷’ 집담회 2 두꺼비하우징을 추진중인 ‘산새마을 텃밭’
3 주민참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희망마을담당관 참여구정팀 직원들(사진 가운데가 은용경 참여구정팀 팀장)



인 터 뷰 김 우 영 은평구청 구청장

**‘참여’와 ‘소통’으로
사람중심 행정 이끌다**

자료 · 은평구청

은평구청장 취임 후 3년이 흐르는 동안 은평구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 2010년 7월 취임 전부터도 은평구는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 왔어요.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서민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취임과 함께 주민참여와 소통이라는 큰 틀에서 구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결과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변화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죠.

예컨대 재래시장 사람들이 모여 상인대학과 시장상인회를 구성하고, 산새마을 분들이 합심해 30년 이상 된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을 가꾸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어요. 틈새계층의 어려운 이웃을 돋는 복지두레도 생겨나고, 주민참여위원회들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 예산 편성에도 참여해요.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모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도적인 정비도 하고, 모바일투표를 포함한 주민총회도 실시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도입 초기에는 구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주민들의 참여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업무가 가중된다는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존

재했었죠. 그러나 참여예산제도는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나누어 갖는다는 점을 구의회에 적극 설명해 설득했어요. 직원들도 다양한 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지자 조직에 활력이 생기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죠. 현재 정착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총회에 참여중인 은평구민들

진관동 뉴타운 내에 한옥마을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북한산은 연간 1,000만 명의 등산객이 찾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관광자원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렇듯 은평구는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명산인 북한산 앞으로 진관동에는 현대식 건물로 구성된 은평뉴타운 아파트가 있으며, 뉴타운 내 단독주택 부지에 친환경 명품주거지인 한옥마을이 조성될 예정이에요.



은평한옥마을은 쾌적한 거주환경을 기반으로 주거뿐만이 아닌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관광단지로 복합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한옥콘텐츠를 전시하는 국내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은평한옥체험관, 진관사 템플스테이, 전통음식체험관 등도 인근에 이미 건립중에 있어요. ‘한옥, 한식, 천년고찰, 북한산’을 연계한 ‘한’(韓) 브랜드와 결부시켜 앞으로 외국인들이 북한산 둘레길도 둘러보고, 진관사에 가서 한식도 맛본다면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좋은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요.

집무실에 ‘일자리창출 추진상황판’과 ‘구민약속 핵심사업 추진상황판’이 있다군요.

- 일자리창출 추진상황판과 구민약속 핵심사업 추진상황판 모두 구정추진에 가장 중요



한 사항들을 365일 잊지 않고 상기해야 하겠다는 의지에서 설치했어요. 2012년 초 일자리창출 추진상황판을 설치하고서는 그 해에 당초 계획이었던 8,000명보다 25%를 초과 달성한 1만 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서울시 일자리 인센티브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런 효과를 구민과의 약속에도 적용해야 되겠다 싶어

올해 초 구민약속 핵심사업 추진상황판까지 설치했어요. 언제나 상황판들을 볼 때면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요. 추진 성과가 저조할 때는 물론이고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저조할 때면 당연히 더욱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과가 좋을 때도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더욱 좋은 성과가 날 거라는 기대가 생겨요.

‘은평에 살고 싶은 101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는데, 혹시 최근 더하고 싶은 게 있나요.

- 미국의 피츠버그시가 만든 ‘피츠버그에 살고 싶은 101가지’라는 홍보물에 착안해서 2010년에 책을 썼죠. 북한산과 불광천 등 자연환경, 은평을 빛내준 인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단체 등은 물론 중산동 막걸리, 응암동 감자국 등 소소한 먹거리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하고 싶은 것을 말하자면, 첫 번째로 얼마 전 구청 앞에 개업한 ‘은평 꼬부랑 콩나물국밥 전문점’이에요.

처음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비 마련 차원에서 콩나물을 재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건데, 이제 식당으로까지 발전했어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없는 밤이나 주말에도 콩나물에 물은 계속 공급해야 하기에 구청 직원이 고민 끝에 자동 물 공급 장치도 개발했죠. 작년엔 재배한 콩나물을 활용한 식당을 운영해 부가가치를 높여보자는 생각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해 당당히 선정되었어요. 콩나물 국밥집은 일자리를 창출해냈을 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신있게 은평에서 살고 싶은 102번째 이유로 말하고 싶어요.

그밖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우리 구의 슬로건은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입니다. 모든 행정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공부하기 좋은 마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재해 없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한 1,200명의 은평구 직원들 모두 은평에 사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한옥마을

2 일자리창출 추진상황판

3 사람 중심의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우영 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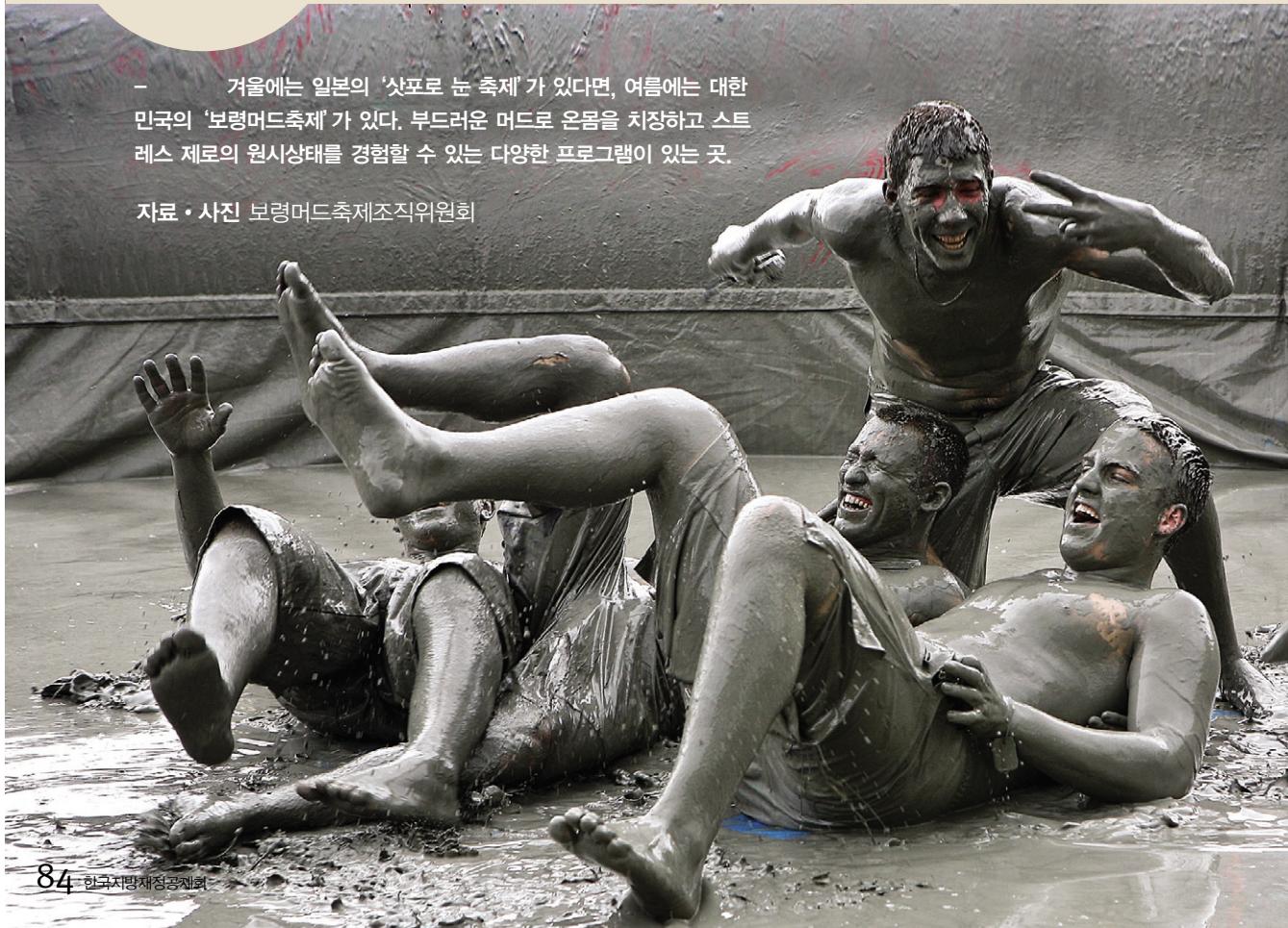
보령머드축제

제16회

머드에 흠뻑
빠지다! 뒹굴다! 즐기다!

- 겨울에는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가 있다면, 여름에는 대한민국의 '보령머드축제'가 있다. 부드러운 머드로 온몸을 치장하고 스트레스 제로의 원시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

자료 · 사진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 지역축제인 '보령머드축제' . 을 해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머드체험' 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개최된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룬 서해안 최대의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에서 피부미용에 좋은 청정 머드체험과 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답답한 도시민들이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맴껏 풀 수 있다는 게 머드축제가 가진 장점이다.

강지난해 제15회 보령머드축제기간 중 방문한 관광객 308만 명 중 24만 명이 외국인이었으며, 해마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명실공히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가장 재미있었던 축제로 인식되어 글로벌축제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있다.

천연 미네랄 등 각종 유효성분이 다양 함유

머드는 '물기가 있어 질척한 흙' 이라는 뜻. 보통 진흙을 함유한 점토성 물질과 함께 동식물 등의 분해 산물, 토양 · 염류 등이 퇴적되어 오랜 세월 동안 지질학적 · 화학적 작용을 받고 미생물의 분해 작용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해산, 캐나다 콜롬비아 해안의 빙하토, 러시아 바이칼, 캘리포니아 클레어 머드, 뉴질랜드 화산 머드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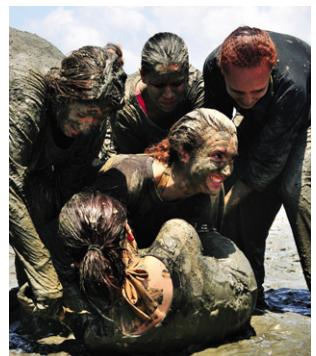


이에 착안하여 보령시에서는 지난 1996년 대천해수욕장 주변의 청정 해안에서 채취한 양질의 바다 진흙에서 추출한 머드 파우더와 머드워터가 피부노화 방지, 피부노폐물 제거 등 피부 미용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내 유명 화장품 업체와 손잡고 머드비누와 화장품을 OEM 생산하여 보령시가 품질을 보증하여 판매하고 있다.



머드는 클레오파트라의 진흙화장, 중국의 흙 화장품인 백토분 등 오랜 옛날부터 피부미용과 피부질환을 고치는 데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화장품 원료, 피부관리, 의류염색 등에 사용되고 있어 인류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보령머드는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천연 미네랄 등 각종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피부에 활력을 주는 광물질이 풍부하여 깊고 싱싱한 피부를 가꾸어준다고 한다.

또한 교질성분(콜로이드)과 결정성분이 있어서 모래찜질 사우나처럼 물리적 치료방법에도 이용할 수 있다. 항균·억균 작용이 있어 의상치료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국·중국·일본 등 외국에도 수출되고 있다.



외국인 참여가 제일 많은 축제로 유명

보령머드축제는 지난 1998년 4일간 16개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다. 관광객들의 요청으로 제4회 때부터는 7일로, 제11회 때부터는 9일로 운영되던 것을, 올해 제16회에는 열흘로 연장하여 운영된다.

머드축제장이 위치해 있는 대천해수욕장은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고, 전국 어디서나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용이하다.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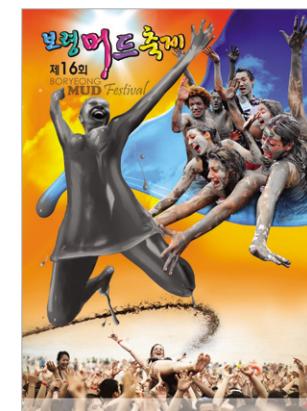
내 축제들 중 외국인 참여가 제일 많은 축제로도 알려져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축제 평가에서 2008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2011년부터는 '대한민국 명예 대표축제'로 지정되어 축제의 자생력 확보에 노력한 한 해였다. 또한 2011년에 세계축제 및 이벤트협회로부터 IFEA(International Festivals & Events Association) 3개 부문에 걸쳐 금상(1개), 은상(3개)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스페인토마토축제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는 유럽의회(EU)회관(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사진홍보전을 개최하고, 올해는 체험 프로그램을 교환하여 진행한다.

보령시는 머드화장품 외에도 머드침대, 머드도자기, 머드음료, 머드치킨 등 머드 상품을 다양화함과 아울러 머드테마역, 시내버스, 택시, 관용차량 등에 머드축제 이미지를 부착했다. 브랜드 택시 머드콜 운영 등을 통해 머드시티(Mud-city)로서의 통합 이미지 구축에도 성공했다. ☺

2013년 제16회 보령머드축제 공식 포스터



| 날짜 | 2013년 7월 19일(금) ~ 28일(일)

| 장소 |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및 대천시내 일원

| 주요행사 |

- 머드 스페인토마토 축제, 머드컬러 페인팅, 머드씨름, 머드슈퍼슬라이드, 갯벌장애물마라톤, 갯벌극기체험 등

| 홈페이지 | www.mudfestival.or.kr

| 전화 | 041) 930-3882

축제통합으로 예산 줄이고, 행정효율 높이고



허상곤

경북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과수한방과 과장

자료 ·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 경북 영천은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있는 도농복합도시예요. 영천시농업기술센터는 영천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전 과수와 한방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과수와 한방은 영천 농업분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과수와 한방이 발달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 영천은 강우량이 적고 맑은 날이 많은 곳으로 유명해요. 자연재해가 적고 일조량이 많아 예부터 과수농업이 발달했어요. 1960년대부터 금호강 주변일대에서 사과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대구능금'의 원조이죠.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과 대신에 포도, 복숭아, 살구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일조량이 높아 당도가 높고, 자연재해가 적어 생산량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아요. 과일 재배 면적만 5,000헥타르 (ha) 정도입니다. 농업소득의 대부분이 과일이

- 해마다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지역축제는 모두 750여 개. 지역축제에만 연간 2,6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전시성·선심성 지역축제의 난립으로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작년 가을 비슷한 지역축제를 통합함으로써 예산과 행정인력을 크게 절감해 주목받은, 경북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과수한방과의 허상곤 과장을 만났다.

어서 '과일의 천국', '과일의 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약초재배에 적합한 지형과 토양을 갖추고 있어요. 채약산과 보현산에서 생산되는 약초는 옛날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특히 채약산은 말 그대로 '약을 캐는 산' 이라 부를 만큼 약초 종류가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어요. 1960년대부터 한약재 유통의 중심도시로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최전성기 때는 전국 한약재 유통량의 3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작년말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더군요.

- 네, 그랬습니다. '축제 통합으로 축제의 질 두배, 예산은 절반' 사례를 발표했어요. 2011년까지 영천에선 해마다 2개의 축제가 열렸어요. 1998년부터는 과일축제가, 2003년부터는 한약축제가 있었죠.

이 2개를 통합하게 되면 이벤트 비용과 부스 설치, 잡상인 통제, 행사 사후처리 등의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행정의 효율성, 축제 운영인력 최소화 등 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2012년 영천과일한약장수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열었어요. 지역을 대표하는 2개의 축제를 하나로 합친 거죠.

2개의 축제를 통합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예산절감이죠.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영천도 재정자립도가 20% 정도로 대부분 국비와 도비를 받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요. 때문에 예산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두 번째 이유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2개의 축제와 농업 관련행사, 그리고 그밖에 가을에 치르는 문화행사들을 모두 합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어요.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커요. 물론 단일축제가 되면 그 품목에는 많은 홍보가 될지 모르지만, 크게 본다면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객'이 아닌 '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들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참여보다는 관람하는 '객'으로만 있었어요. 우리끼리만의 집안 잔치였다고 할까요. 민간주도형으로 바꾸고, 외부손님들이 많이 와주는 잔치로 바꾸자 마음먹었죠. 자원봉사단체, 부녀회 등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 영역을 넓히는 한편, 작목반이나 범인, 농협 등이 참여해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게 했어요.

지역주민들의 음식점과 각종 동아리 등이 주



영천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포도를 이용한 와인 개발에도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 와인사업단이 운영하는 와인학교에서 수강생들이 만든 와인들.

도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했고요. 지역 주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면서 민간주도형 축제로 바뀌었어요. 도시민들이 간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소포장을 만들고, 축제장 내에 택배 회사를 상주시켜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어요.

예산절감 효과를 어떻게 거뒀는지 궁금해요.

- 2개의 축제를 하나로 합치면서 무대, 홍보, 공연, 이벤트 용역 등에서 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어요. 주민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바뀌면서는 1,000만 원의 예산을, 그밖에 유사 농업인 관련축제를 연계하고, 사후처리 비

용, 잡상인 통제비 등에서 3,000만 원을 줄였어요. 합쳐서 모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하게 된 셈이네요.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시비 재정에도 큰 돈이었죠.

축제기간 동안 한약재와 과일을 특별 판매했다던데요.

- 축제에선 무엇보다 지역농산물의 홍보와 판매가 중요해요. 과일은 생산자 단체인 농협 중심으로, 한약은 영천시한약발전협의회가 주도했어요. 각 지역 향우회와 자매결연도시, 그리고 산사순례단 등 도시민들 약 5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어요. 포도, 복숭아, 사과, 한약재 등을 팔아 24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작년 행사를 치르면서 부족했다고 느낀 점이 있었나요.

- 처음으로 영천금호강 강변공원에서 행사를 치렀어요. 말끔히 새단장한 금호강과 최신식 음악분수대, 그리고 시민들의 접근이 쉬워 축제장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밤에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이 되었고요. 부족한 점은 주차문제죠. 축제장과 500미터 떨어진 5만 평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축제장 인근에 주차하기 위해 단속요원과 실랑이하는 등 교통혼잡이 심했어요.

올해 행사는 어떤가요.

- 올해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돼요. 운영방식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전국농촌지도자대회가 축제장에서 함께 열려 4,000여 명의 전국 농촌지도자들도 방문할 계획이에요.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하고 있죠. 또한 대도시 소비자연맹과 산사순례단 등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 작년말 열린 '영천과일한약장수축제'



▲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과수한방과에서 동고동락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오랫동안 농업분야 업무만 담당했는데요.

● 1979년에 고향인 영천군 대창면사무소에서 농업직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었어요. 현재 34년째 이 일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농산, 농지민원, 과수원예, 특작, 유통마케팅 등을 담당해 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엔 주요 업무가 '식량 증산정책'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FTA 체결 등으로 해외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면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시설 현대화 등으로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영천에만 해도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는 농가가 500여 가구가 넘습니다. 과거의 농촌과는 많

이 달라졌죠. 잘 사는 농촌,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밖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 드립니다.

● 농민들은 농산물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 피와 땀과 정성을 쏟습니다. 땅과 기후 그리고 사람이 만나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농업은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일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게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영천과일한약장수축제가 전국 대표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척척히 준비하겠습니다. ☺

연간기획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 지방재정 위기와 지방공기업의 관계 – 송상훈

- 지방공기업의 경영위기와 개혁과제 – 한인섭

- 지역축제, 주민들의 창의성이 필요하다 – 최재경

LOFA 포럼

리포트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높여라!



리포트 섹션은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는 공간. 그 중 하나로 이번 2013년 5·6월호(제9호)부터는 연간기획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매호 연재한다. 이번 시리즈는 지방공기업과 지방재정 위기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경영 위기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주요 개혁과제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간기획과 더불어 지방재정 현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LOFA 포럼'을 함께 게재한다.

